

‘나주 방문의 해’ 선포식...관광객 500만 시대 연다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국 단위 마케팅·채류형 관광정책 본격 가동 관광공사와 협약... 공동 홍보·콘텐츠 확산·협력사업 등 단계적 추진

나주시가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나주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관광도시 실현에 나선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올해 '목사골' 나주를 500만 관광객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 관광 마케팅과 채류형 관광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나주시는 이날 선포식에서 나주시의 관광 비전과 전략을 전국에 알리고, 중앙부처와 광역·관광유관기관의 협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또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와 나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단위 홍보 마케팅 체계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홍보, 관광 콘텐츠 확산, 관광 네트워크 연계 등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이날 선포식 현장에는 나주의 매력을 직접 체험



나주 방문의 해 포스터. <나주시 제공>

할 수 있는 '관광 주제관'도 운영한다. 주제관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나주의 역사, 문화, 미식, 체험 콘텐츠를 구성해 '영산강의 중심, 나주'라는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참석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나주시는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채류와 소비 중심 관광으로의 구조 전환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 사업인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나주 1박 2득'은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타 지역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한다.

나주에서 1박을 하는 경우 숙박 인센티브와 지정 유료관광시설 할인 또는 무료 이용 등의 두 가지 혜택을 제공해 관광객 체감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인센티브는 동행 인원내 따라 2-3인은 5만원, 4-5인은 10만 원, 6인 이상은 13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아동을 동반할 경우 2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시스템 구축 및 사전 점검을 거쳐 3월 1일 이후 숙박부터 인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인센티브 지급 방식은 현장 지급과 온라인 지급으로 이원화했다.

사전 신청은 24일이며, '2026 나주방문의 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현장 지급은 나주사랑상품권 제공으로 여행 중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즉시 이어지도록 했고, 온라인 지급은 '나주몰' 포인트로 지급해 방문 이후에도 농특산물 소비가 이어질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와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함평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함평군 제공>

친환경 식재료를 꿈나무들에게 건강한 식사

함평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지원 대상·규모·범위 등 안전 의결

"미래 꿈나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함평군이 미래 인재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기 위한 심의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함평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 우수 농산물 우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강하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회, 교육지원청, 학부모·교사·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위촉된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2026년도 학교급식 지원 대상과 규모, 범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친환경농산물과 비유전자 변형식품(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의 대상 및 기준, 유기농 쌀 공급 품종 결정 등의 학교급식 지원 안전을 심의·의결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대학교 등 총 45개교 2488명이며, 사업비는 6억여원이다.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구매비 차액을 지원한다.

또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고등·특수학교를 제외한 40개교 1578명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3700만원으로, Non-GMO 식재료의 구입비를 지원한다.

유기농 쌀 공급 품종으로는 우리 군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하고 미질 변화가 적고 맛이 좋아 선호도가 높은 '신동진'과 '새청무' 품종을 공급 품종으로 결정했다.

운영위원 겸 농업정책실 팀장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버스터미널 전경.

강진버스터미널 관광·문화·홍보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매입 절차 완료... 3652㎡ 리모델링

강진버스여객터미널이 강진군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강진군은 최근 버스여객터미널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시설 전면 리모델링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시설은 노후 부분을 정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정보 안내와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도 도입

할 예정이다.

공간 구성도 달라진다. 터미널 내부는 대합 기능에 머물지 않고 관광·문화·특산물 정보를 집약한 '강진홍보관'을 운영해 지역의 매력을 한눈에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한다. 방문객에게는 첫인상을, 군민에게는 일상 속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청년창업 공간과 커피숍 등 생활밀착형 기능도 함께 배치해 대기 공간을 넘어 머무는 공간으로 성격을 확장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열

린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터미널 이용객과 인근 상권을 함께 고려해 주차타워 설치도 검토한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버스여객터미널은 군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시설이자 강진의 관문"이라며 "낙후된 시설은 과감히 개선하고 최신 시스템과 다양한 기능을 더해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 빠빠용Zip 사형제 인식 투표...찬성 77%·반대 21%

관람객 2800명 대상 조사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이 바뀐 조사 결과 가 나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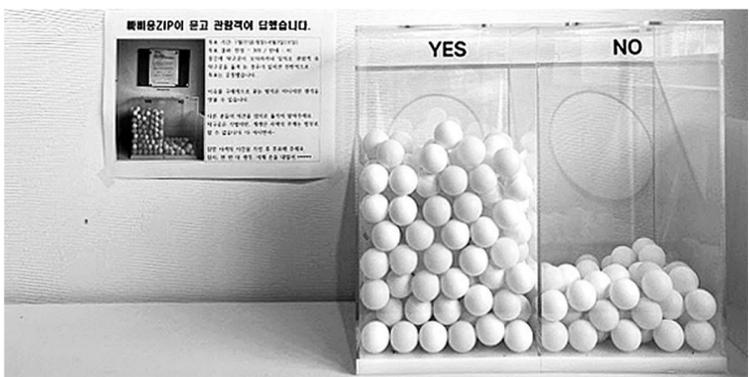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인 '빠빠용Zip' 관람객 2800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 인식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형제 찬성'에 응답한 관람객은 77%인 2147명(77%)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형제 반대'는 598명(21%), '무효'는 35명(1%)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실상 국가, 제도에 의한 생명 박탈이 장기간 멈추면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극히 드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형제도 인식 투표'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지난해 12월 26일까지 관람객의 자율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 관람을 넘어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공



장흥 빠빠용 Zip에 마련된 사형제 인식 투표함. <장흥군 제공>

감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참여형 콘텐츠였다"면서 "관람객들이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옛 장흥교도소를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 개조한 빠빠용Zip은 문화체육관광부 유류공간 문화재생산업업을 통해 옛 교정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국내 유일의 실물 교도소 보존 복합문화공간이다.

교정의 역사와 형벌 제도의 변천을 조망하는 '교정역사 전시관'과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테마관'을 운영하며 공간의 장소성을 살린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전남 생활체육대회' 공식 슬로건 공모

장성군이 다음 달 6일까지 '제38회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제' 공식 슬로건(표어)을 공모한다.

공모는 전남 생활체육과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2개 부분으로 나뉜다. 생활체육인의 화합

을 바탕으로 열리는 건강한 스포츠 축제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을 공모한다. 장성군의 비전과 역사, 전통, 미래지향적 가치가 반영된 20자 이내 문구로, 누구나 공감하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

입상작은 부문별 최우수 1편, 우수 1편, 장려 3편 등 총 10편을 선정한다. 상금은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성군민과 공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박차 가한다

40개 사업 6억 3678만원 규모

장성군이 올해 지역 내 16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40개 사업 6억 3678만원 규모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장성군의 지원은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군민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확대, 다양한 주민을 아우르는 문화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지역 정체성을 살린 전통문화 사업과 생활 밀착형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배치해 문화·예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성문화원은 지역문화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향축전과 민속놀이 한마당 등을 운영하고, 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을 추진해 지역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데 힘쓴다.

장성음악협회는 지역축제 기간 열린음악회를

선보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마천전통예술보존회 전국국악경연대회, 국악협회 국악연수사업, 국악제 참가 지원, 장성문인·미술협회 전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춘·추향제와 백일장, 동학농민기념사업회 기념행사, 인성문화진흥원 인성문화교실 운영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문화의 깊이를 더한다.

또 지역 내 유일한 미술관인 아인미술관 운영 지원을 통해 예술 기반 확충과 지역문화 여건 확보에 기여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참여형 문화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건설기계 15대 엔진 교체 지원

다음달 6일까지 신청 접수

미세먼지 저감·대기질 개선

화순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화순군은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1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장치 규격에 따라 900만원에서 2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화순군으로 등록된 것으로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개인 1대, 법인 1대로 한정 ▲2년 이상 의무 운행이 가능한 건설기계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건설기계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공해 엔진으

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지며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순이다. 다만, 조건이 같을 시 차량의 연식(건설기계 제작년월일 기준)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저공해조치'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접수는 신분증과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민영에 화순군 환경과장은 "노후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이 예정돼, 대상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